

‘조급함’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

글 | 김동환 _ 고려대 재료공학부 교수, 본지 편집위원 donghwan@korea.ac.kr

힘 령한 연구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이 사용되지만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 분들은 동시대의 연구자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한 사람이며, 그 놀이마당 덕분에 많은 동료 후배들을 즐겁게 한 공로가 있다”고 말이다. 좋은 논문이 발표되면 동료 과학자들이 그에 영감을 받아서 비슷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렇다.

측정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장을 열어서 주위의 동료 후배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을 꿈꿔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연구 업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면서 나이를 먹는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일 때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좋은 논문도 많이 쓰고 해당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일부 원로 과학자들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읽혀지는 때가 적지 않다. 필자도 ‘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한 건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사실이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잠시 즐거운 공상에 빠진 적이 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학술상 수상자들이 발표되는데 수상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수상자들의 표정이나 인상이 다소 굳어 있거나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 가깝게는 일본의 과학자들 중에서 높은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 온 사람이 갖는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을 보여준다. 필자에게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성공한 한국의 과학자

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한국에서 연구해서 성공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 아닐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환경이나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만큼 개인의 노력이나 희생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 지난해 여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사람들 표정이 한국 사람들이 20~30년 전에 짓던 표정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깡마르고 긴장되어 있으며 눈만 반짝거리는 그러한 표정 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게임의 룰은 단순하고 다분히 상식적이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룰을 만들어 바꾸고 복잡하게 변질시킨다. 개인은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기도 새로운 룰을 이해하고 쫓아가다보니 살아남기 바쁘다. 그래서 한국 과학자들의 오늘이 이렇게 고단한 게 아닐까.

‘선진화’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킨다고 얘기하기에 앞서 선진화가 이룩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잣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측정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가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선진화를 향한 노력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특징을 찾아내어 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의 구성원이 의욕에 차 있으며 동시에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의욕이 있으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의 평균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정이 얼마나 이에 가깝게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도표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눈동자의 광반사도는 얼마인가, 눈동자는 1초에 몇 번 흔들리는가, 눈꼬리는 아래 눈썹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나 처져 있는가, 눈가 주름의 평균 각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등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에 도전하자

애기가 좀 장황하게 된 점이 있지만 어쩌면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겠다는 공상에 빠져 잠시나마 행복했다. 지금 있는 놀이마당에서 조금씩 평수를 늘려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상을 한다는 것은 사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위안이 된다.

사실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학문적 결과로 만들기 위해 모험을 서슴지 않는 사람의 능력과 용기는 대단한 것이다. 어쩌면 능력보다도 그들의 용기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매일 우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시급한 연구를 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런 중에서도 좀 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용기의 소유자다.

그러나 또 어찌 아는가. 스스로의 범상함에 식상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매일 착실히 전진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후배들에게나 일을 맡기기보다는 좀 꼬장꼬장하게 보이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을 지키고 논문을 뒤적이는 모습을 견지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새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추위에 웅크리며 건물 그늘 속을 걷다가 햇볕으로 나오면 무척 따뜻하다. 겨울이 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다시 한 해가 내 앞에 주어졌으니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아직도 많은데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일 년이 눈앞에서 증발한다. 일할 수 있는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해진다. 남들은 다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쳐진 채 느림보 걸음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수록 용기를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이제는 ‘급한 일’ 보다는 뭔가 더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해보자. 그러려면 ‘급한 일’이 내게 가하는 횡포로부터 벗어나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침착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새 봄에는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새 일을 찾아보고 겁 없이 도전하는 첫발을 디더보자.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놀이마당을 열 행운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싹틔줄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가. ⑥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